

광양시,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성공모델 발굴 착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한다”...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

광양시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6월 12일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청년정책 5대 분야 50개 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5개년 계획인 제2차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을 진단한 뒤, 청년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광양형 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수립할 계획이며,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목표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기홍 부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심층적인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현필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산업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상에 밀접한 소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도립미술관과 미디어아트 등 광양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접점으로 삼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총 2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2024 청년친화도정대상’ 소



통대상 수상, 청년인구 순유입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 '전국 최초 10년 연속 수상'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향올라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청춘스케치마을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진도군, (주)모다모다와 업무협약 체결 다시마 등 지역 수산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진도군은 최근, 국내 대표 생명과학 화장품(바이오 코스메틱) 기업인 ㈜모다모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도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에서 생산한 다시마와 미역을 원료로 활용해 ㈜모다모다가 염색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지속적인 원료 공급과 공동 홍보, 상품화를 위해 진도군과 모다모다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도군에서는 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모다모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모다모다는 이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

릴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 수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진도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출시한 염색약 제품과 기능성 샴푸 제품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 ㈜모다모다의 발전과 더불어 진도군의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측은 “진도에서 생산된 다시마와 미역은 품질이 뛰어나고 생물학적 효능이 우수해 염색약 개발에 매우 적합한 원료”라며, “앞으로도 진도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진도군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3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과 해양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양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해양바이오·블루푸드 관련 과제 공동 수행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분야는 ▲해조류 등 블루푸드 기

완도군-한국식품연구원, 블루푸드 테크 산업 활성화 맞손 해양바이오·블루푸드 테크 과제 공동 수행 협력

농성 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정보 교류 등 협력 ▲바이오를 접목한 블루푸드 테크 분야 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산·학·연 협력 과제 공동 수행 ▲지역 해양바이오·블루푸드 테크 역량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해조류 등 식품 원료 확보 및 건강 기능 식품 효능 평가 협력 등이

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하여 우리 군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과 함께 블루푸드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블루푸드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 데이터(IoT), 3D 프린팅,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하는 ‘블루푸드 테크’를 육성 중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세계 수준의 식품 연구기관으로 기능성 식품 연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연구 등 산업계와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순천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모집 공공근로 1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 60명 총 230여명 모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23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 60명, 총 230여명이다.

근로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참여자는 정보화 추진 분야,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 환경정비 분야 등 약 109개의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 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오는 8월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순천/경성인 기자

보성군 전 읍면 대상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본격화 모기, 파리 등 해충 밀도 사전 차단...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

보성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관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모기, 파리 등 해충의 발생 밀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9월 말까지 방역활동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중점 방역 지역은 등산로, 하천변, 주택가, 축사 인근 등 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며, 읍면별 방역 차량을 활용한 연무소독과 휴대용 분무기 등을 통한 맞춤형 소독이 병행된다.

또한, 군은 방역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 방역 장비 대여와 기피제 분사기 관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장성군,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 추진

7~8월 두 달간... 집중호우 특단 불법배출 사전 차단

장성군이 7~8월 두 달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선다.

군은 녹조 확산과 공공수역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8월 까지 집중단속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현장 감시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천 수위 상승 시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20개 장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 단속반을 파견해 현장순찰과 예방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서는 이달 중 폐수배출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자체점검 사전 안



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영미 장성군 환경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업장 자체점검 등 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